



사마귀 생태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

목표물을 향한 무한한 인내심



오늘은 전에 말한 대로 사마귀 얘기를 좀 할게. 위에서 그린 놈은 지금 내 방 창틀에 붙어 있는 놈을 얼추 스케치해 본 것이다. 요즘은 사마귀들이 한창 극성을 부릴 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쇠창살에 사마귀들이 보통 대여섯 마리씩 붙어 있을 정도 이니까. 어떤 땐 이놈들이 방안까지 들어와 자고 있는 얼구 위로 푸다닥거리며 날아다녀 잠을 깨우기도 한다. 징역을 처음 살 때는 방안에 들어온 사마귀가 징그러워서 들어오는 족족 잡아서 창 밖으로 내다 버리곤 했는데, 독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마귀야말로 거미와 함께 소중한 친구가 아닐 수 없구나. 해서 지금은 방에 있던 사마귀가 밤새 어디로 가 버리거나 하면 서운하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다.

당랑거철(螳螂拒輻)이란 말 아는지? 사마귀(당랑)란 놈이 자기 앞에 있는 커다란 수레를 두 팔로 막고 서서는 못 가게 한다는 말인데, 제 분수를 모르고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런데 정말 사마귀란 놈은 겁이 없네. 아니, 겁이 없다기보다는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손으로 잡으려 해도 도망갈 생각을 아니 하고 마치 막대기처럼 꿈쩍않고 있는 거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사마귀가 용맹하다기 보다는 사마귀의 생티상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말미잘이나 송충이, 자벌레 따위가 적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그것들은 적에게 대항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변 환경속에 은신시켰다가 먹이가 눈앞에 지나가면 잡아먹는 스타일의 생물들이다. 사마귀도 그래. 이몬이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그 길다란 몸을 나뭇가지 사이나 문기둥 사이에 붙여 놓고 몇

시간이나 꿈쩍 않고 있는 거야.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지형지물처럼. 그러다가 거미라든가 무슨 벌레가 그 앞을 지나가면 번개 같은 동작으로 앞발을 내밀어 잡아서는 마구 씹어먹는다.

내가 방에 있는 거미중에 사상이 붙은 놈들을 잡아서 사마귀에게 형 집행을 맡긴다는 말을 했었지? (자신의 처지를 봐서도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나는 엄청난 거미 살육을 하고야 말았다. 태풍이 분다고해서 창문을 끼려고 창틀 청소를 하다가 창틀의 오목진 곳에 거미줄로 칭칭 감긴 고치 같은 것이 붙어 일길래 무심코 확 잡아뚫었더니 우수수 하고 마치 명태알처럼 생긴 거미알 수백 개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휴지로 쓸어 담아 버렸지. 자세히 보니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길래 역시 휴지로 싸서 버렸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 있었다. 손으로 뜯어보니 이번엔 알이 아니라 이미 부화된 새끼거미들이 새끼망게 엉겨 있는 것이었다. 부화된 지 얼마 아니 된 듯 알에 다리만 붙어 있는 형상이었다. 이놈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꿈무늬에 거미줄을 붙여서 바둥대는데 참으로 가관이였다. 이 엄청난 수의 새끼거미를 놔주었다가는 내 잠자리가 엉망이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또 휴지로 싹 닦아 내었다. 이렇게 해서 난 오늘 수백마리의 새끼거미들을 살육했던 것이다. 제발 오늘 밤 꿈자리가 사납지 말아야 할 텐데……) 거미를 잡아서 빨리 도망치지 못하게 알다리 하나쯤을 떼어 낸 뒤 사마귀 앞에 놓으면 아주 재미있는 일을 구경할 수 있다. 거미란 놈은 자기보다 큰 적을 만나면 후닥닥 도망가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사지를 경직시킨 채 죽은 시늉을 한다. 사마귀는 절대로 죽은 벌레는 먹지 않거든.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만약 거



미가 그 팽팽한 긴장 상태를 깨고 도망가려고 첫발을 내딛는 순간 사마귀는 전광석화처럼 그 긴 앞발을 뺀어 잡아 버리고 만다. 거미가 사마귀의 앞발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 있을 경우 사마귀 녀석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음흉스럽기 그지없다. 목표물을 향해서 덤석 덮치거나 하는 행동을 예상하고 이놈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지레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말 거다. 목표물을 향해서 얼마나 천천히 접근하는지 언제 보아도 마치 제자리에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란다. 군대 훈련 중에 '야간 정숙 보행'이란 것이 있다. 칠혹 같은 밤에 적의 진지를 침투할 때 하는 보행인데,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시속 몇 미터의 속도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사마귀란 놈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모양이 꼭 그렇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접근해서 목표물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그대로 덮쳐 버리는 거야.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창틀에서 새끼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주르르 내려오다가 그만 밑에 있는 사마귀와 부딪혔다. 사마귀도 무언가 자신의 둘째 발에 부딪힌 것 같았는지, 그쪽을 훑 노려보았다. 그러자 이 새끼거미가 일체 동작을 중지하고 사마귀의 둘째 발 중간에 딱 하니 붙어 버린 거야. 마치 죽은 듯이. 이놈이 얼마나 급했는지 다리 여덟 개 중 두 개는 미처 접지도 못하고 뺨정다리인 채로 굳어 버리고 만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럽니? 마치 “웃

음놀이 합시다, 모두 다 합!” 하고는 중지한 것처럼 야릇한 자세로 사마귀 발에 붙어 있는데 놀랍게도 10분이 넘도록 그 자세로 꼼짝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것에는 공격을 않는 사마귀도 드디어는 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지 고개를 쓱 돌려버리더라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새끼거미가 도망치는데 참말로 빠르데. 호랑이 아가리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놈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사마귀란 놈은 정말 잔인하데, 웬만한 중치거미 한 마리 잡아먹는 데 몇십 초도 안 걸려. 거미 발톱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씹어 삼키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다. 한번은 이놈이 햇빛을 역광으로 받은 채로 거미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햇빛 때문에 기다란 몸속으로 으깨어진 거미가 꿀떡꿀떡 넘어가는 모습이 흰히 보이더라구. 무엇보다 잔인한 것은 이 놈들은 교미가 끝난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다. 교미도 한번 붙었다 하면 네다섯 시간은 보통이야. 며칠 전 이 선생님 방에 있던 사마귀가 교미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었는데, 날개와 딱딱한 다리 일부만 남기고 깡그리 먹어치우더라구. 말로만 듣던 사마귀의 잔인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 이렇게 잔인한 사마귀이지만 이제는 돌도 없는 친구가 되어 함께 잘 살고 있다. 사마귀가 극성을 부리자 방에 있던 십여 마리의 거미가 겨우 두 마리만 남고 싸그리 없어졌다.



1955년 서울생.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1년 6월 8일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널리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서른이던 1985년 마흔네 살이 될 때까지, 13년 2개월 동안의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감옥 안에서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에 가까운 풀들을 심어 가꾼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생태공동체운동가로 활동중이며 ('생태공동체운동센터 www.commune.or.kr), 저서에 「야생초 편지」(도솔, 2002), 「백천간두에서 서서: 공동체 시대를 위한 명상」(사회평론, 1992), 「꽃보다 앓다운 사람들: 양심수 황대권의 유럽인권기행」(두레, 2003)와 역서 「가비오파스」(말, 2002)가 있다.